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in the Between Incivility and Burnout Experienced of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중 경험하는 무례함과 소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Mi Hwa Lee¹, Jeong Yee Bae²

이미화¹, 배정어²

¹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Inje University, Korea, candle3134@naver.com

²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Inje University, Korea, jibai@inje.ac.kr

Corresponding author: JeongYee Ba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incivility and burnout experienced of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Also, we were tested effectiveness of mediating effects of 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on burnout in clinical practice. The research survey was 122 nursing students in the 3, 4 grades of nursing departments at 4 universities in B metropolitan city from June 1 to June 30, 2022. The research data were analyzed using IBM SPSS 21.0 Version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study analysis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variable, and also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civility and burnout. For this purpo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in three stages and Sobel test.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civility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s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resilience. Secon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burnout and resilience. Thir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as confirmed between incivility and burnout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s. A partial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was found between incivility and burnout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s. In summary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in order to reduce the burnout of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 official reporting system in cooperation with schools and hospitals and active efforts to improve the of incivility in nursing organizations. In addition, burnout can be effectively reduced if resilience is promoted through human relationship capacity building education, regular counseling system, or supportive nursing education system that can be used by nursing students in the clinical practice.

Keywords: Resilience, Incivility, Burnout, Nursing Student, Clinical Practice

요약: 본 연구 목적은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무례함과 소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매개변수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조사는 2022년 6월 1일~6월 30일까지 B광역시에 소재한 4개 대학의 간호학과 3, 4학년 122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도구로는 회복탄력성, 무례함, 소진척도를 사용하였다. 연구자료는 연구목적에 따라 IBM SPSS 21.0 Version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변수 사이의 관계를

Received: December 09, 2022; 1st Review Result: January 23, 2023; 2nd Review Result: February 21, 2023
Accepted: March 31, 2023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무례함과 소진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으로 매개효과 3 단계 검증과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무례함은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둘째, 소진과 회복탄력성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셋째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무례함과 소진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무례함과 소진 사이에 회복탄력성의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볼 때, 간호대학생의 소진을 줄이기 위해서는 간호조직에서도 무례함에 대한 분위기를 개선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과 학교와 병원이 협력하여 공식적 보고체계를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임상실습 현장에서 간호대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인간관계 역량 강화 교육, 상시 상담 체계나 지지적인 간호교육 체계 등을 통하여 회복탄력성을 증진한다면, 소진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회복탄력성, 무례함, 소진, 간호대학생, 임상실습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간호대학생은 간호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이론적 지식을 학습하고 그것을 실제 간호 상황에 적용하는 방법을 탐구하며 간호교육의 필수적인 요소인 임상실습을 동시에 병행하고 있다[1]. 임상실습을 통해 다양한 임상 간호 현장을 경험하고,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는 간호 전문직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한다[2]. 그러나 많은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현장에서 간호사의 무시나 무관심, 불쾌한 표정, 생각 없는 행동, 비꼬는 행동, 귀찮아하는 표정 등과 같은 무례한 행동을 경험하기도 한다[3].

무례함은 상호존중과 예의라는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여 해를 입히려는 모호한 의도를 가진 정중하지 못한 사람과 무례함을 인지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대상 간에 생기며 이는 부정적 감정과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4]. 이러한 낮은 공격성과 애매한 의도성으로 인하여 무례함은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폭력이나 약자 괴롭힘에 비해 과소평가 될 수 있다[5].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환경에서 행해지는 교육적인 무례함은 파괴적인 행동으로 대개 권위적이거나 경력이 높은 직원들로부터 일어나고 있다[6]. 이미 조직 분위기에 스며들어 있으면 상호 간 무례가 반복되다가 점점 증폭되어 실제 폭력 행위로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며[4], 안전하고 건강한 간호 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무엇보다 상호 존중의 문화 형성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7]. 임상 환경에서 실습하는 많은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현장에서 무례함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간호대학생들은 임상 현장의 간호사로부터 언어적 표현이나 말투, 부적절한 호칭의 사용 등을 경험하였다[8]. 임상실습에서 간호사로부터 무례함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경우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에 무력감을 느끼며 소진을 유발하여 간호사를 바람직한 역할 모델로 인식하지 못하고 졸업 후 간호사를 하더라도 사기 저하, 이직률 증가, 근무환경에 적대감을 느끼는 등의 간호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9].

소진(burnout)은 소진은 대인관계를 주로 하는 개인에게 발생하는 것으로써 과도한

심리적 부담과 요구들로 인한 정서적 탈진, 자신에 대한 냉소적이고, 개인의 성취감 부족으로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무능감의 총체적 현상이다[10]. 간호대학생은 과중한 학업과 예비 간호사로서 임상실습 현장에서 간호사, 환자와 보호자, 타 직종의 의료진과 의사소통하고 있다. 간호사로부터의 행해지는 무례함 경험으로 부정적인 임상 현장에 노출되는 것은 학생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며,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관리가 힘들고 자신이 변화시킬 수 없는 환경으로 인지하여 자신감을 약화하고 소진을 초래한다[9]. 임상실습 현장에서 가중된 소진이 지속되는 경우 재학 기간 학업의 몰입도가 낮아지고, 위축과 좌절감을 겪게 할 수 있고 직업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향후 간호사로서의 역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임상실습 교육과정에서 소진을 완충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11].

소진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데,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2].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은 스트레스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발달 과정이며, 회복탄력성에 의해 축적된 경험은 간호대학생의 적응 능력과 안녕감을 증진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스트레스나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관점에서 완충 역할을 한다[13]. 이는 자신에게 닥치는 역경과 어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역경을 성숙한 경험으로 바꾸어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보호 요인으로[14], 개인의 타고난 자질이라기 보다는 시간과 상황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으로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15].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은 과중한 학업과 임상실습을 동시에 병행하는 교육과정에서 개인의 내·외적 문제와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개인의 능력으로 간호사로서 성장할 간호대학생에게 필요한 부분이다.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의 소진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무례함과 대처[8], 임상실습 만족도[16],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17], 회복탄력성[18][19]에 대한 연구는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일부 변수 간의 상관관계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소진과 변수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무례함 경험에 대한 중재와 변인으로 예상되는 회복탄력성의 효과를 탐색하는 연구는 없었다.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무례함은 병원의 계층적인 구조와 실정 등 임상실습 환경의 맥락적 요소가 무례함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으며[4], 많은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현장에서 간호사의 무시나 무관심, 불쾌한 표정, 생각 없는 행동, 비꼬는 행동, 귀찮아하는 표정 등과 같은 행위로 인해 느끼는 무례함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무례함은 실제로 간호대학생의 50~100%가 임상실습 중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어 그 횟수가 높았고[4],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무례함은 임상실습에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 소진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16][17]. 이에 따라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무례함의 정도를 파악하고 소진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스스로 적응과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절하므로 학업과 임상실습을 경험하고 있는 간호대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은 간호대학생활 적응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6].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무례함은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20],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와 실습소진의 관계를 매개하였고[18], 임상실습 중 경험한 무례함으로 저해되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로 나타났다[15]. 또한,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시 경험한 무례함이 진로정체감 관계를 매개하였다[6].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중 겪게 되는 부정적인 경험에 회복탄력성이 보호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유추되었다. 하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해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중 경험하는 무례함과 소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탐색하는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간호사의 무례함을 포함한 부정적인 임상 환경은 간호대학생의 소진을 가중시키고 있어 최근 빈번히 보고되고 있는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무례함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인식을 확인하고[8], 중재 변인으로 회복탄력성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18].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중에 경험하는 무례함 정도를 파악하고, 무례함과 소진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중 무례함 정도를 파악하고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보호적인 역할을 하는 회복탄력성의 영향을 고려하여 간호대학생의 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한 임상 교육의 질향상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임상실습 경험을 한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중 경험하는 무례함과 소진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B 광역시에 소재한 4개 대학의 간호학과 3~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자수 선정기준은 G*Power 3.1.9.2 프로그램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분석방법은 유의수준 .05, 효과 크기(f^2)는 중간 크기인 0.15, 검정력($1-\beta$)은 .95, 예측요인을 독립변수 1개, 매개변수 1개를 포함하여 2개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 방법으로 표본수를 구한 결과 107명이었다. 그러나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13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하였고, 설문 중 응답이 불성실한 8명을 제외하고 총 12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회복탄력성(Resilience Scale: RS)

회복탄력성은 고난이나 역경 등 심각한 삶의 도전에 직면하고서도 극복하고 적응하며 나아가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의 심리, 사회적 특성을 의미한다[21]. Wagnild & Young[21]이 개발한 회복탄력성 측정도구(Resilience Scale)를 Song[22]이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Resilience Scale License Pack for Students를 US\$75에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5문항의 5점 척도로 개인의 내적 특성을 측정하는 개인의 유능성(17문항), 자기와 삶의 수용성을 측정하는 자신의 삶의 수용(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Song[2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0.88$, 본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alpha=0.85$ 이었고, 하위척도의 개인의 유능성 Cronbach's $\alpha=0.91$, 자신의 삶의 수용 Cronbach's $\alpha=0.80$ 이었다.

2.3.2 무례함(Uncivil Behavior in Clinical Nursing Education: UBCNE)

무례함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으며 생각 없는 행동으로 해를 입히려는 의도는 불분명하나 폭력적이며 반사회적인 행동이다[5]. Anthony & Yastic[3]이 개발한 무례함 측정도구(Uncivil Behavior in Clinical Nursing Education: UBCNE)를 Hong[8]이 번안한 도구로 원저자의 도구승인절차를 거친 후에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2문항의 5점 척도로 H-M/Dismissive(hostile/mean/dismissive; 적대적인/비열한/무시하는)와 EXBEV(exclusionary; 배제하는)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없음’ 0점에서 ‘매우 자주’ 4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험한 무례함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Hong[8]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0.90$,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0.88$ 이었다.

2.3.3 소진(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 MBI-SS)

소진은 대인관계를 주로 하는 개인에게 발생하는 것으로써 과도한 심리적 부담과 요구들로 인한 정서적 탈진, 자신에 대한 냉소적이고, 개인의 성취감 부족으로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무능감의 총체적 현상이다[10]. Schaufeli et al[23]이 개발한 소진 측정도구 (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 MBI-SS)를 Shin et al[24]이 번안한 도구로 원저자의 도구승인절차를 거친 후에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5문항의 5점 척도로 정서적 탈진 5문항(1~5문항), 냉담 4문항(6~9문항), 무능감 6문항(10~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무능감은 긍정문항으로 역 환산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Shin et al[24]의 연구에서 정서적 탈진 Cronbach' $\alpha=0.86$, 냉담 Cronbach' $\alpha=0.82$, 무능감 Cronbach' $\alpha=0.82$, 본 연구에서 전체 Cronbach' $\alpha=0.77$ 이었고, 하위척도의 정서적 탈진 Cronbach' $\alpha=0.87$, 냉담 Cronbach' $\alpha=0.90$, 무능감 Cronbach' $\alpha=0.88$ 이었다.

2.4 윤리적 고려

본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참여를 원하지 않을 때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철회할 수 있으며, 수집한 모든 관련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될 것임을 고지하였다. 자기기입식 설문지에 의한 의견조사이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거나 노출되지 않음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후에 설문 자료를 배포하고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에 응답하였다. 작성을 중지하거나 철회한 경우를 포함한 모든 설문지의 자료 및 정보에 대한 내용은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보안 유지가 잘 되는 서랍에 보관하고, 이후 설문지는 종이 파쇄기, USB 파일은 영구삭제의 방법으로 폐기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2.5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22년 6월1일~6월 30일까지 본 연구자는 대학교에 방문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 간호학과 학과장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 윤리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자료수집 시 본 연구자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윤리적인 부분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설문지와 동의서가 함께 들어있는 봉투를 제공하여 자가 보고식의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응답에 대한 충실성을 높이고 시간 할애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모든 대상자에게 사은품을 제공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약 15~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설문지 작성이 모두 끝날 때까지 기다린 후 설문지와 동의서를 밀봉된 개인용 봉투에 넣어 회수하였다.

2.6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에 따라 SPSS/WIN 21.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회복탄력성, 무례함, 소진 정도는 평균 및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무례함, 소진 차이 검증은 독립표본 t-test, one way ANOVA로 분석하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회복탄력성, 무례함, 소진 관계는 피어슨 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5) 대상자의 무례함 경험과 소진 간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성 검증을 Baron & Kenny[25]가 제시한 3단계 절차에 따른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본연구에서 활용한 분석 방법은 매개모형을 분석하는 전통적인 통계분석 방법이라 하겠으며,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후, 2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과정으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모두 투입하여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게 된다. 이에 최종 분석결과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 유무에 따라 매개변수는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또는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의 3단계 매개분석 방법이 다소 오래된 검증 방법임을 감안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검증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에 추가로 Sobel test[26]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여성 104명(85.2%), 남성 18명(14.8%)로 대부분 여자였다. 연령은 평균 24.99±7.78세이었으며, 21세 이하 51명(42.3%), 22~24세 35명(28.5%), 25세 이상 36명(29.2%)이었다. 3학년 61명(50%), 4학년 61명(50%)이었으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34명(27.9%), 없는 사람이 88명(72.1%)이었다. 대학생활 만족도는 매우만족 12명(9.8%), 만족 50명(41.0%), 보통 54명(44.3%), 불만족 6명(4.9%)이었으며, 간호학 전공만족도는 매우만족 19명(15.6%) 만족 53명(43.4%), 보통 41명(33.6%), 불만족 9명(7.4%)이었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매우만족 11명(8.9%), 만족 45명(36.6%), 보통 52명(42.3%), 불만족 15명(12.2%)이었다.

[표 1]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무례함, 소진 차이
 [Table 1] Differences of Resilience, Incivility, Burnout by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n(%)	Resilience		Incivility		Burnout		
		Mean (SD)	t or F(p)	Mean (SD)	t or F(p)	Mean (SD)	t or F(p)	
Gender	Male	18(14.8)	3.63±0.43	-0.62	1.29±0.32	-1.56	2.57±0.77	0.01
	Female	104(85.2)	3.71±0.51	(.533)	1.49±0.52	(.120)	2.57±0.61	(.987)
Age (years)	≤21	51(42.3)	3.77±0.54	1.63	1.38±0.36	1.06	2.44±0.61	2.20
	22~24	35(28.5)	3.57±0.51	(.200)	1.51±0.56	(.347)	2.62±0.64	(.115)
	≥25	36(29.2)	3.71±0.41		1.52±0.61		2.71±0.64	
Year	3	61(50)	3.70±0.55	-0.07	1.47±0.60	0.20	2.55±0.70	-0.39
	4	61(50)	3.70±0.45	(.939)	1.45±0.38	(.835)	2.59±0.56	(.694)
Religion	Yes	34(27.9)	3.71±0.46	0.11	1.44±0.48	-0.17	2.54±0.51	-0.42
	No	88(72.1)	3.70±0.52	(.910)	1.46±0.51	(.862)	2.58±0.68	(.670)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very satisfaction ^a	12(9.8)	4.10±0.32	4.58	1.35±0.45	4.74	2.19±0.43	6.81
	Satisfaction ^b	50(41.0)	3.76±0.48	(.005) c<a	1.42±0.38	(.004) a,b,c<d	2.42±0.63	(<.001) a,b<d
	Normal ^c	54(44.3)	3.56±0.49		1.43±0.54		2.72±0.59	
	Dissatisfaction ^d	6(4.9)	3.63±0.63		2.17±0.69		3.29±0.52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very satisfaction ^a	19(15.6)	4.09±0.40	10.17	1.40±0.46	2.12	2.36±0.56	12.81
	Satisfaction ^b	53(43.4)	3.78±0.40	(<.001)d<a	1.38±0.32	.100	2.34±0.55	(<.001)a,b,c<d
	Normal ^c	41(33.6)	3.49±0.49		1.51±0.60		2.78±0.58	
	Dissatisfaction ^d	9(7.4)	3.32±0.67		1.80±0.82		3.41±0.46	
Satisfaction with practice	very satisfaction ^a	10(8.9)	3.96±0.59	4.84	1.18±0.19	7.97	2.05±0.43	35.93
	Satisfaction ^b	45(36.6)	3.83±0.40	(.003) d<a,b	1.29±0.27	<.001 (a,b<d)	2.15±0.43	(<.001) a,b<c<d
	Normal ^c	52(42.3)	3.62±0.48		1.54±0.51		2.83±0.49	
	Dissatisfaction ^d	15(12.2)	3.37±0.60		1.89±0.79		3.36±0.49	

3.2 대상자의 회복탄력성, 무례함, 소진 정도

대상자의 회복탄력성, 무례함, 소진 정도는 [표 2]와 같다. 회복탄력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70 ±0.50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 개인의 유능성은 3.69±0.53점, 자신의 삶의 수용성은 3.71±0.54점이었다. 무례함 경험은 4점 만점에 평균 1.46 ±0.50점이었다.

소진은 5점 만점에 평균 2.57±0.63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 정서적 탈진은 3.17±0.90점, 냉담함은 2.04±0.91점, 무능감은 2.42±0.70점이었다.

[표 2] 대상자의 회복탄력성, 무례함, 소진 정도

[Table 2] The Degrees of Resilience, Incivility, Burnout

Variables	Min	Max	Item Range	Item Mean (SD)
Resilience	2.48	4.80	1~5	3.70 (±0.50)
Personal competence	2.18	4.94	1~5	3.69(±0.53)
Acceptance of self and life	2.25	5	1~5	3.71(±0.54)
Incivility	0	2.58	0~4	1.46 (±0.50)
Burnout	1.13	4.07	1~5	2.57 (±0.63)
Emotional exhaustion	1	5	1~5	3.17 (±0.90)
Cynicism	1	4.50	1~5	2.04 (±0.91)
Inefficacy*	1	5	1~5	2.42 (±0.70)

* Reverse

3.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무례함, 소진 차이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무례함, 소진 차이는 [표 1]과 같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학생활 만족도($t=4.58, p=.005$), 간호학 전공 만족도($t=10.17, p<.001$), 임상실습 만족도($t=4.84, p=.003$)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e 사후검정 결과 대학생활 만족도는 ‘보통’ 집단보다 ‘매우 만족’ 집단이 회복탄력성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간호학 전공 만족도는 ‘불만족’ 집단보다 ‘매우 만족’ 집단이 회복탄력성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임상실습 만족도는 ‘불만족’ 집단보다 ‘만족’ 또는 ‘매우 만족’ 집단이 회복탄력성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무례함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학생활 만족도($t=4.74, p=.004$), 임상실습 만족도($t=7.97,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e 사후검정 결과 대학생활만족도는 ‘매우 만족’ ‘만족’ ‘보통’ 집단보다 ‘불만족’ 집단이 무례함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임상실습 만족도는 ‘매우 만족’ 또는 ‘만족’

집단보다 ‘불만족’ 집단이 무례함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소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학생활 만족도($t=6.81, p<.001$), 간호학 전공 만족도($t=12.81, p<.001$), 임상실습 만족도($t=35.93,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e 사후검정 결과 대학생활 만족도는 ‘매우 만족’ 또는 ‘만족’ 집단보다 ‘불만족’ 집단이 소진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간호학 전공 만족도는 ‘만족’ ‘매우 만족’ ‘보통’ 집단보다 ‘불만족’ 집단이 소진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매우만족’또는‘만족’집단보다 ‘보통’집단이 소진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보통’집단보다는‘불만족’집단이 소진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3.4 회복탄력성, 무례함, 소진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회복탄력성, 무례함, 소진 간의 상관관계는 [표 3]과 같다. 무례함과 회복탄력성($r=-.27, p=.002$)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소진과 회복탄력성($r=-.42, p<.001$)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무례함과 소진($r=.43, p<.001$)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표 3] 회복탄력성, 무례함, 소진 간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Variables	Resilience	Incivility	Burnout
	r(p)		
Resilience	1	-.27 (.002)	-.42 (<.001)
Incivility	-.27 (.002)	1	.43 (<.001)
Burnout	-.42 (<.001)	.43 (<.001)	1

3.5 무례함과 소진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무례함 경험과 소진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는 [표 4]와 [그림 1]과 같다. 무례함 경험과 소진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Baron & Kenny[25]의 3단계 매개효과 검증절차를 이용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소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대학생활만족도, 간호학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를 통제 했을때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Sobel test[26]를 실시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다. 자기상관성 검증은 Durbin-Watson지수를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Durbin-Watson지수는 1.654~2.295로 나타나 2근방의 값이므로 오차 항들 간 자기상관성 없이 독립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중공선성 검증은 독립변수 공차한계(TOL: 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통해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공차한계(TOL)는 .92~1.00로 나타나 0.1 이상이었고, VIF지수는 1.00~1.08로 10 미만의 값으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은 없으므로 본 데이터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절하였다.

본 연구에서 단계 1에서는 독립변수인 무례함이 매개변인인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무례함은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0.277, p=.002$), 회복탄력성에 대한 설명력은 6.9%였다($F=9.950, p=.002$).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무례함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은 낮아짐을 의미한다. 단계 2에서는 독립변수인 무례함이 종속변수인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무례함은 소진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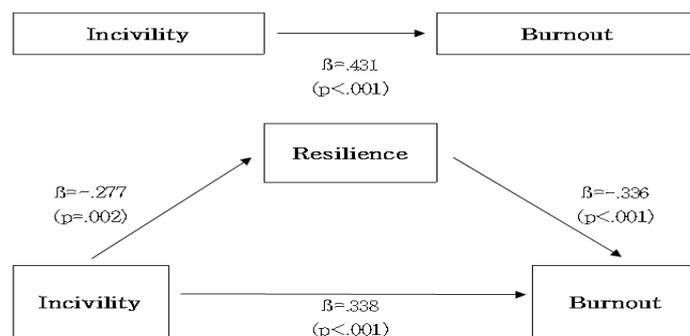
나타났으며($\beta=0.431, p<.001$), 설명력은 17.9%였다($F=27.299, p<.001$).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무례함이 높을수록 소진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마지막 단계 3에서는 독립변수인 무례함과 매개변수인 회복탄력성이 종속변수인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무례함($\beta=0.338, p<.001$)은 소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복탄력성($\beta=-0.336, p<.001$)은 소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례함과 회복탄력성에 대한 설명력은 27.7%이었다($F=24.232, p<.001$). 즉,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무례함이 소진을 높이고,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소진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단계 2에서는 무례함이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단계 3에서 무례함과 회복탄력성을 투입한 결과 무례함이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단계 2에서의 설명력 17.9%에 비하여 단계 3에서의 설명력이 27.7%로 그 영향효과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무례함과 소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26]를 실시한 결과,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Z=2.52, p=.012$). 따라서, 회복탄력성은 무례함과 소진의 관계를 부분 매개 한다고 할 수 있다.

[표 4] 무례함과 소진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Table 4]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civility and Burnout

Variables	B	β	SE	t	p	Adj-R ²	F	p
1. Incivility-> Resilience	-.278	-.277	.088	-3.154	.002	.069	9.950	.002
2. Incivility-> Burnout	.545	.431	.104	5.225	<.001	.179	27.299	<.001
3. STEP1 Incivility-> Burnout	.427	.338	.102	4.198	<.001	.277	24.232	<.001
STEP2 Resilience-> Burnout	-.423	-.336	.101	-4.175	<.001			
Sobel test: $Z=2.52, p=.012$								
Durbin-Watson=1.654~2.295, TOL=.92~1.00, VIF:1.00~1.08								



[그림 1] 무례함과 소진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Fig. 1] Model for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civility and Burnout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의 경험이 있는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70.8%가 24세 이하인 대부분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 무례함, 소진 간 관계를 알아보고, 무례함과 소진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은 1~5점 범위에서 평균 3.70점이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oong 등[20]의 연구에서는 3.75점, Kim[18]의 연구에서는 3.49점, Kim[27]의 연구에서는 3.74점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하였다. 간호대학생은 낮은 임상실습 현장에서 업무를 재빠르게 파악해서 진행하는데 간호사보다 기술과 경험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생기며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15], 실습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19]. 회복탄력성은 개인의 타고난 자질이라 기보다는 역동적이어서 시간과 상황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며 개인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며 개인의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다([15]. 스트레스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하고 성숙해지기도 하는 회복탄력성은 적절하게 중재되지 않으면 소진을 경험하게 되므로 소진의 조절변인으로 밝혀졌으며,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을 증진하기 위해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가 낮은 대상자를 선별하여 만족도가 낮은 구체적인 요인을 확인하여 임상실습 현장에서 간호대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인간관계 역량 강화 교육, 상시 상담 체계나 지지적인 간호교육 체계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교육과정의 질 개선이 중요하다[19]. 또한 간호대학생에게 새로운 도전이며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낮은 환경에서의 임상 실습과 다양한 상황에서의 회복탄력성의 강화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무례함 정도는 0~4점 범위에서 1.46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등[16]의 연구에서는 1.18점으로 선행연구 결과보다 본 연구 대상자가 높았으며, Lee 등[4]의 연구에서는 1.61점, Jeon 등[17]의 연구에서는 1.88점으로 본 연구 대상자가 낮았으나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편이었다. 연구 결과 무례함 정도가 낮은 것은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에서 무례함을 적게 경험했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15]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현장에서 간호사로부터 불쾌한 표정, 무시나 무관심 등 무례함을 경험함에도 우리나라의 사회관계 특성상 사회적 규범, 개인과 사회의 관계 중요시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이 무례함을 미래에 간호사로서 직면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무례한 언행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16]. 개인이 경험한 상황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무례함의 개념에 따라 동일하지 않게 인지할 수 있다[5]. 서양의 무례함 상황은 사회적 규범보다 개인적 관계를 더 중요시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부조화를 야기하여 발생하는 무례함인 반면 한국의 무례함은 사회적 규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더 중시하고 나이, 학벌 등이 영향을 미친다[8].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대상자의 무례함 경험과 상황을 인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무례함 경험이 낮은 정도의 결과라 하더라도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에서 무례함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일 것이다.

대상자의 소진은 1~5점 범위에서 평균 2.57점이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등[16]의 연구에서는 2.60점, Jeon 등[17]의 연구에서는 2.74점, Cho 등[19]의 연구에서는 2.92점 결과로 본 연구 대상자가 더 낮았으나 보통 이상의 결과로 임상실습 현장에서

간호대학생으로서 경험하는 대인관계의 어려움, 학업과 임상실습 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어려움, 역할갈등과 지식 부족, 동반된 무거운 책임감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보인다[28]. 간호대학생의 소진이 높으면 피로감을 느끼고 학업몰입도가 감소하거나[23] 가중된 소진은 직업에 대한 준비뿐 아니라 졸업 후 신규간호사가 되었을 때 직무소진으로 인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1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 정도는 대학생활만족, 간호학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학생활 만족도는 ‘매우 만족’ 또는 ‘만족’ 집단보다 ‘불만족’ 집단이 소진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간호학 전공 만족도는 ‘만족’ ‘매우 만족’ ‘보통’ 집단보다 ‘불만족’ 집단이 소진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매우 만족’ 또는 ‘만족’ 집단보다 ‘보통’ 집단이 소진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보통’ 집단보다는 ‘불만족’ 집단이 소진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실습소진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18]에서 대학생활 만족도는 ‘불만족’이 ‘만족’, ‘보통’보다,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이

‘만족’, ‘보통’보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불만족’이 ‘만족’, ‘보통’ 보다 실습 소진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대학생활 만족도는 대학 생활에 만족스럽게 잘 적응하지 못할 확률이 학업 소진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보다 학업 소진을 경험한 학생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대학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학업 장면에서의 소진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29]. 간호학 전공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은 학업 몰입 및 학교생활 적응이 높기 때문에 학업소진을 낮게 느끼게 되며 학업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상대적으로 소진이 낮음을 설명할 수 있다[30].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실습소진의 관계: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18] 연구에서 임상실습이 불만족일수록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동안 현장에서 간호사의 귀찮아 하는 존재로 여기는 말투나 눈빛, 무시하는 행동, 무관심 등의 무례한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으며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임상실습의 불만족은 전공에 대한 만족과 자부심이 저하되어 소진이 유발될 수 있다[17].

대상자의 소진은 회복탄력성과는 음의 상관관계, 소진과 무례함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무례함과 회복탄력성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무례함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낮고 소진이 높으며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소진이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무례함이 높을수록 소진이 높다는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에서 경험한 간호사의 행동을 무례함으로 인지한 경우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이러한 무례함의 경험은 소진을 유발한다는 Hong[8]의 연구, Kim 등[16]의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소진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낮다는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18]의 연구, Cho 등[19]의 연구, Lee[30]의 연구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관적인 태도로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많을수록 소진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무례함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낮다는 연구결과는 Koong 등[20]의 연구에서도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간호대학생은 낮은 임상실습에서 경험한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 상황을 스스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스트레스를 조절하여 발전적인 에너지로 전환시켜 대학생활을 돕는 회복탄력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18]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즉,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낮은 상황에서 융통성을 발휘하고 스트레스 상황을 유연하게 받아들여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보고된 연구를 뒷받침한다.

본 연구에서 변수 간 관련성과 함께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으로 경험한 무례함과 소진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은 무례함과 소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서 경험한 무례함은 소진에 직접 영향을 주며 동시에 회복탄력성을 매개하여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나타낸다. 즉, 무례함 경험만으로 소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회복탄력성이 높을 때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무례함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감소한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회복탄력성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여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저하될 수 있으나 다시 회복되어 더 높은 곳까지 향상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18]. 본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시 경험한 무례함이 진로정체감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는 Kim[6]의 연구, 임상실습 중 경험한 무례함으로 저해되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는 연구 Lee 등[15]의 연구,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와 임상수행능력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는 Kim[27]의 연구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와 실습소진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부분 매개효과를 보여준 Kim[18]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함께한다. 본 연구 연구 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은 임상실습 중 경험하는 무례함과 소진에도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회복탄력성은 무례함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더라도, 무례함과 소진의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이로 인해 무례함이 소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선행연구에서는 변수 간의 상관관계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무례함 경험에 대한 중재와 변인으로 예상되는 회복탄력성의 효과를 탐색하는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회복탄력성은 무례함과 소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이로 인해 임상실습 중 경험하는 무례함이 소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관계를 검증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임상 교육의 질 향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중 경험하는 무례함 정도를 파악하고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을 신장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무례함과 소진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매개변수로 작용하는지를 파악하여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구되었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소진은 임상실습 중 경험한 무례함으로 영향을 받았으며, 회복탄력성의 부분매개효과는 있었다. 즉, 회복탄력성은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무례함과 소진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여 소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은 물론 학교, 병원 차원에서도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무례함은 간호대학생에게 소진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간호사 직업에 대한 직업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간호조직에서도 무례함에 대한 분위기를 개선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과 학교와 병원이 협력하여 공식적 보고체계를 마련이 필요하다. 임상실습 현장에서 간호대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인간관계 역량 강화 교육, 상시 상담 체계나 지지적인

간호교육 체계 등을 통하여 회복탄력성을 증진한다면, 소진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

- [1] J. J. Lee, C. L. Clarke, M. N. Carson, Nursing students' learning dynamics and influencing factors in clinical contexts, *Nurse Education in Practice*, (2018), Vol.29, pp.103-109.
DOI: <https://doi.org/10.1016/j.nepr.2017.12.003>
- [2] B. Arkan, Y. Ordin, D. Yilmaz,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experience related to their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and factors affecting to their clinical learning process, *Nurse Education in Practice*, (2018), Vol.29, pp.127-132.
DOI: <https://doi.org/10.1016/j.nepr.2017.12.005>
- [3] M. Anthony, J. Yastic, Student nurses' experiences with incivility in clinical education,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2011), Vol.50, No.3, pp.140-144.
DOI: <https://doi.org/10.3928/01484834-20110131-04>
- [4] E. N. Lee, N. G. Kim, The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perfectionism tendency and perception of instructor caring on incivility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21), Vol.27, No.4, pp.436-446.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21.27.4.436>
- [5] L. M. Anderson, C. M. Pearson, Tit for tat the spiraling effect of incivility in the workpla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999), Vol.24, No.3, pp.452-471.
DOI: <https://doi.org/10.2307/259136>
- [6] N. G. Kim, The Effect of Incivility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Practice on Career Identity: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Resilience, Dong-A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22)
- [7] American Nurses Association, American Nurses Association's 81 position statement on incivility, bullying, and workplace violence, Silver Springs, MD: American Nurses Association, (2015)
- [8] Y. K. Hong, Incivility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 coping and burnout in clinical practice, Pusan National University, Master Thesis, (2016)
- [9] C. Furst,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s of lateral violence and career choice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Nursing Education Perspectives*, (2018), Vol.39, No.4, pp.241-243.
DOI: <https://doi.org/10.1097/01.NEP.0000000000000314>
- [10] C. Maslach, S. E. Jackson, The measurement of experienced burnout, *Journal of occupational behavior*, (1981), Vol.2, No.2, pp.99-113.
DOI: <https://doi.org/10.1002/job.4030020205>
- [11] C. M. Ko, Effects of Empower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um Stress and Burnout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017), Vol.25, No.2, pp.120-127.
DOI: <https://doi.org/10.17547/kjsr.2017.25.2.120>
- [12] M. Yildirim, G. Arslan, A. Özaslan, Perceived risk and mental health problems among health care professionals during COVID-19 Pandemic: Exploring the mediating effects of resilience and corona virus fear,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and Addiction*, (2020), Vol.20, No.2, pp.1035-1045.
DOI: <https://doi.org/10.1007/s11469-020-00424-8>
- [13] Y. E. Lee, E. Y. Kim, S. Y. Park, Effect of Self-Esteem, Emotional Intellig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n Resilience in Nursing Students,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2017), Vol.23, No.3, pp. 385-393.
DOI: <https://doi.org/10.4094/chnr.2017.23.3.385>
- [14] H. O. Song,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lienc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Hospital Employees, Korea University, Master Thesis, (2014)

- [15] J. H. Lee, O. Y. Wi, Mediating Effects of Resilience and Major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of Incivility in Clinical Practice Settings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Students of One Nursing University,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0), Vol.20, No.24, pp.435-456.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20.20.24.435>
- [16] J. G. Kim, J. H. Yoo, E. Y. Cheon, Relationship among Incivility, Burnout, Coping and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experienced by Nursing College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7), Vol.18, No.1, pp.316-324.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1.316>
- [17] M. K. Jeon, J. W. Oh, Relationship Between Rudeness, Burnout, Major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which Nursing Students Experience During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 Vol.15, No.1, pp.339-346.
DOI: <https://doi.org/10.14400/JDC.2017.15.1.339>
- [18] H. J.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Practice Burnout in Nursing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Seoul Cyber University, Master Thesis, (2021)
- [19] H. H. Cho, J. M. Kang,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Practice Burnout in Student Nurses,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2017), Vol.23, No.2, pp.199-206.
DOI: <https://doi.org/10.4094/chnr.2017.23.2.199>
- [20] H. S. Koong, T. J. Jang, N. An, Influence of Uncivil Behavior and 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on Stress in Clinical Nursing Education, *Korea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0), Vol.20, No.5, pp.95-109.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20.20.15.95>
- [21] G. M. Wagnild, H. M. Young,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resilience scale, *Journal of Nursing Measurement*, (1993), Vol.1, No.2, pp.165-178.
- [22] Y. S. Song, Determinants of resilience of the physically disabled at home, Kosin University, Master Thesis, (2004)
- [23] W. B. Schaufeli, I. M. Martinez, A. M. Pinto, M. Salanova, A. B. Bakker, Burnout and engagement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002), Vol.33, No.5, pp.464-481.
DOI: <https://doi.org/10.1177/0022022102033005003>
- [24] H. Shin, A. Puig, J. Lee, J. H. Lee, S. M. Lee, Cultural validation of the Maslach Burnout Inventory for Korean students, *Asia Pacific Education*, (2012), Vol.12, No.4, pp.633-639.
DOI: <https://doi.org/10.1007/s12564-011-9164-y>
- [25]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86), Vol.51, No.6, pp.1173-1182.
- [26] M. E. Sobel,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Sociological Methodology*, Washington D. C.: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pp. 290-312, (1982)
- [27] M. J. Kim, Effect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Stress on Clinical Competency: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Keimyung University, Master Thesis, (2018)
- [28] M. J. Kim, The Establishment of Mental Health Explanation Model according to the Gender of Nursing College Student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20)
- [29] G. E. Shin, The Mediating Effects of Loneliness and Academic Burnou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fectionism and School Adjustment of College, Dongshin University, Master Thesis, (2022)
- [30] E. H. Lee, Effect of Resilience on Academic Burnou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22), Vol.20, No.6, pp.178-18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9.20.6.178>